



생존과 희망의 북한여성 삶의 현장 : 북·중 접경지역을 가다

노귀남 (연변대 객원연구원)

1. 머리말

- 김정일시대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전환 (2021년 개정 당규약)
- 김정은시대: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인민경제 회복에 역점
- 인민경제 회복 난제: 국제사회 경제제재와 제도와 '시장'의 불일치가 지속.
- -시장과 '장마당'의 이중구조
- -사회주의 시장이냐/시장경제시장이냐
-
- 북한 변화의 흐름은 결국 시장을 제도화하고 개방하는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인가? (시장경제 수용이 인민경제 회복의 길인가?)
- 장사로 먹고 살아야 하는 가정경제의 주역,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접경지역을 통해서 살펴본다.

2. 접경지역 교류와 국경

■ 외부세계 통로 접경지역

- -사사(私事)여행자, 무역일군, 밀수꾼, 파견노동자, 도강자:
- -사사여행자, 도강자들... 대개 장기 체류, 비법노동 등으로 돈벌이를 한다.
- ↔ 북중 양국의 국경강화, 비법 통제 관리

■ 사사여행자(/화교) 입국 짐 검열 강화

- -통관 규제 물품 증가... 국산품 애용원칙, 북한 생산 품목과 같은 종류 상품 반입금지, 학용품, 한국 상품 등
- -검열로 인민경제를 **쫓쿠는** 것이라 반발... 북 세관원이 요구한 한국 화장품 전달. 대가로 반입이 불가능한 한국 **염색약**을 **연길에서 구매하여 들여감**. 염색약은 청진수산물기지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계산해 넘기고, 대신 수산물을 싸게 가져와 팔면, 이윤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 -2018년 들여갈 상품이 마땅치 않아 고민... **무역 아이템을 정하기 어렵고** 벌이가 별로 없다.
- -2019년 경제제재로 국내 장사가 안 되어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위안화를 가져가겠다.
- -사무역, 밀수가 점점 힘들다. (1990년대 중국 조선족이 북으로 들어가서 장사/**조선장시** ...초기에 돈벌이를 많이 했다고 자랑했다)

■ 동료간의 협력,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안내자 역할

- -화교끼리 운반차 이용(편의를 봐준다: 지금 돈을 벌지 않고 언제 벌겠나...)
- -방문자로 나온 북 주민이 중국에서 할 일을 못 찾고, 문화충격으로 빈손으로 귀국하려 하면, 서로 일자리를 알선한다.

■ 철조망 장벽과 교두: 통제 시설과 세관검열 강화

- -김정은 정권... 국경지대의 경비초소를 2층 다락집으로 (이전에는 국경경비초소가 은폐되어 잘 안보였음)
- -2015년도에 본 북중강변 지역 북측 철조망은 주민들에게 '경계선' 같은 인상일 뿐, '장벽'의 의미가 안보임. 2017~2018년 무렵부터 혜산과 김정숙군 일대 강변쪽으로 철조망이 새로 설치되고 있었음(보강, 교체, 추가시설).
- -2010년대 중국측 두만강지역의 철조망 설치를 시작해, 현재는 국경 전역에 설치됨. 중국은 2016년 수해 이후 철조망을 재설치 보강하고, 이후 군대가 검문검색을 하면 서 외국인 접근 불허(2018년) 등, 점진적으로 국경강화.

*북측 철조망



DAILY NK

- **당국의 비사투쟁:** 비공식사회 단속을 상시적/수시로 함
- -접경지역 도시에서 밀수, 비사현상 상시적 단속
- (개인장사는 특히 보위부에 뇌물이 필요함: 청진의 철제 현관문 제작 판매 장사를 하는데, 종자돈은 중국 방문자로 나간 어머니가 화교 송금을 통해 지원함. 2019년에도 뭇돈으로 보위부에 고이고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장사한다. 코로나 봉쇄 이후는 소식이 끊김.)
- -비사그루빠 불시 검열: 불법 손전화기를 사용한 밀수, 돈 이관(화교 송금 등), 인신매매 등의 브로커 활동에 대한 중앙당 법무부와 국가보위성 합동그루빠. 도나 시의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가 봐주기 할 수 없다.
- **북한은 국가통제가 가능한 경제방식의 제도화 중:**
- 교역과 교류에서 개인과 여성에게 영향을 크게 준다.(통제로 인해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가서 장사를 하는 개인이 중국에서 반입 자체가 점점 어려워져 곤란을 겪는다.)

3. 시장과 장마당

- **시장의 양면:** 기관기업소 주도의 **시장**과 주민에게 각인된 **장마당**
- - **장마당이란?** 주민들 사이에서 국영 백화점, 상점 등 기관·기업소가 운영하는 유통과 대비하여 개인이 참여하여 장사를 하는 장소를 말하는 입말로, 이 시장을 “장마당”으로 통칭한다. 이를테면 ‘혜산시장’이 종합시장으로 꾸려져 있지만 이 시장에 나가서 활동하면 ‘장마당’ 나간다고 말한다.
- -백화점, 상점은 값을 흥정하지 못한다.
- -종합시장, 길거리시장 등 장마당에서는 흥정이 가능하고 장사수완을 발휘해 개인 생존 길을 찾는 곳이다.
- -젊은 여성의 시장활동을 규제하고 장마당 기능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실패(2009년 화폐개혁 직후 젊은 여성장사꾼들의 상품을 국가가 사서 거둬들여 그것으로 ‘상점화’하려고 했지만 무저항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
- **북한은 점진적 제도개혁으로 시장의 사적 영역을 축소:** 김정은 정권은 확대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인정하여 **국가 관리 하에 두면서** 경제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조치 단행(2012), 농업 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2014),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2014), 2019년 개정 헌법에서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명시하였다.

* 공장생산 껌 v 가내생산 껌



*장마당 여성-살아남기

- : 국가질서 속에 허용되는 개인 기업인으로 성장 가능할까?
- -가내공업으로 만드는 껌: 설탕과 동남아 수입산 껌 원료물질을 섞어 반죽하고, 국수를 만드는 수동기계로 납작한 판형 껌을 만들고, 이를 잘라 비닐로 날개 포장한다. 다시 10개씩 종이포장지로 싸서 판매하는 껌이 만들어진다.
- -껌 포장지: 칼라 인쇄로 주원료와 효능까지 표시. 상표등록은 안 되었지만 "여성 껌 포장지" 이용. 다양한 상표가 장마당에 나온다. '국규' 허가가 없는 '짜통'이지만, 이 경우조차 상표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 -시장화의 저변 확대: 회사나 공장의 등록 상표의 정품은 바코드·QR코드까지 쓰고 있는데, 민간은 '가짜 상표' 인쇄물질을 또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함. 개인 장사에서 점점 자본주의 시장 형식에 접근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경공업품의 가내생산 확산은 시장의 폭을 넓히는 일이 되고 민간 경제력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인가?
- (기관 기업소, 생산 공장이 아닌 가내생산의 기회는 점점 좁아짐... 헌법/법과 제도의 정비는 사회주의 제도와 계급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틈새를 점점 줄이고 있다. 반면 GDP 성장과 대외경제가 활발하게 되면, 외부와 제도적 갭이 크면 검은 거래도 늘어날 수 있다. 건설노동시장의 파견노동은 현장의 특성상 사장의 재량이 많고, 이 중장부의 갭도 그만큼 크다: 2017년 2월 면담)

*인민소비품 국산화

(표) 각종 소비제품 전시회 출품 증가추세

	전국 8.3.인민소비품 전시회		전국 인민소비품 전시회	
	종류 /종	가지 /점	종류 /종	가지 /점
2014년	1,500	124,000	-	33,000여
2016년	1,200	130,000	-	100,000여
2017년	7,700	85,000	2,000여	80,000여
2018년	-	287,300	4,500여	150,000여
2019년	25,000	385,700	(600여기업)	410,000여

*이종석, 최은주 편저, “제재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해제”(세종연구소, 2019)

*제도의 안과 밖

- **제도와 제도 밖 사이:** 개인 여성들은 기관기업소 주도의 시장질서와 경쟁해야 한다. 단속과 제재 가운데 살아남기를 한다.
- -김정은 시대 여성은 치마보다 바지를 입고 더 활동적으로 생활. 자전거/오토바이는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 적극적 시장활동. 중국 접경지역으로 나온 여성은 가족들의 생존 지원, 나아가 자립기반을 위해 자동차나 사업의 밑천에도 투자한다. 파견노동, 사사여행자, 탈북자가 송금하는 돈은 국내경제 자립 종자돈 되는 '송금 사경제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 -청진의 수산기업소 여사장: 훈춘으로 식당 종업원 파견, 수산물 무역을 하면서 중국측 대방과 협력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힘. 대외무역일군과 관계 맺고, 중국 조선족과도 **인맥관계를 만들어 거래/교류 범위를 개척.**
- -평양에 본사를 두지 않은 나진의 봉재 기업의 여사장: 그녀는 나진시와 협약을 하고, 평양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노동자 200명의 파견 허가를 받아냈다. 이후 야겔은 훈춘에서 대량의 파견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 노동자를 쓸 수 없어 애로를 겪다가, 현재는 직업학교처럼 하여 파견노동이 아닌 연수생으로 돌려쓴다.

- 요점: 보통 여성과 여사장의 거리. 보통 여성이 “국가질서 속에 허용되는 개인 기업인으로 성장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장마당과 시장의 거리와 같은 차이가 있다.
- *중국 연변에서 '장마당'이란 입말은 기성세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장사꾼은 <영업집조>를 가진 개인기업으로 성장, 장마당은 중국의 시장경제의 '시장'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 *야겔-학원간판: 노동자와 연수생의 차이를 이용. (야겔, 산산, 타이핑냐오 등 중국을 대표하는 패션대기업.)



*파견노동의 뒷모습과 여성노동자의 새로운 체험들

- **파견노동에서 이중구조**
- -주로 평양의 기관 기업소가 주관하는 파견노동에서도 역시 시장의 이중성이 있다. (사적 영역과 지하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 -공식 기관 기업소의 경제행위의 양면성을 보면, 개인의 사적 경제영역을 아무리 축소시키려 해도 역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 -노동자 해외 파견은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와 파견 회사 사이에는 '국가 납부금' 명목으로 노동자 1인당 월 65~85위안 정도를 낸다. 회사는 이 돈을 내지 않기 위해 노동자를 '연수(研修) 인원'으로 만들어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연수생은 명분상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납부금은 없고 반면에 회사 사장의 수입은 많아진다. 그 가운데 지하경제가 굴러가게 한다.
- -편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연수로 돌리는 경우는 큰 기업, 힘이 센 기업일수록 쉽다. 그것은 사장의 자기 능력이다. 회사는 군부, 보위부, 내각 등 기관의 부에서 만들지만 외국에서 북한 회사는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개인회사로 보면 된다. 누가 회사를 키워서 국가에 돈을 많이 바치는가? 집안이 좋고 국가에 충성하면 계속 진급한다. 한편으로 많이 안 번다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머리를 쓰는 "세상은 똑 같다." 사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은 사상이 다를 뿐이다. (2016년 전언)
- -이중계약을 한다: 북한 정부에서 자국민 노동보호를 위해 8시간 근무계약, 잔업의 경우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 본 계약에서 잔업비는 세계노동법에 준해서 쓴다. 이때 중국대방회사는 그런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고, 쌍방 타협으로 '우리끼리 계약은 당 다시 계약서를 하나 쓰자'고 한다. 중국 입장에서 이면 계약서가 없으면 노동문제로 소송 당할 수 있고 모든 소송비용, 귀국비용을 물 수도 있다. (2016년 전언)

4. 여성의 생존 투쟁

- 두만강 기슭에 빠졌한(버젓한) 도문 해관
- 그 옆에 말 없이 서있는 남양 거리
- 대한 추위 온 몸 떨며 버드 나무 흐느적
- 내리는 눈송이도 받아 안지 못하고//
- 넓은 나의 어깨에 눈 송이가득
- 두만강 건너갈 중고집 한 차가득
- 흔들대는 중국인들 넌지시 웃을 때
- 느껴진다 쪽- 벗은 나체의 멋 멋이//
- 육체의 구석에 비쳐드는 아침해살
- 발 끝까지 느껴지는 성적인 쾌락
- 흥분제인 너희들의 문화를 가져가기에
- 내일이면 뿌연 몸을 중고로 가질수 있기에//
- 흐르는 두만강에 온 몸을 사정한다 -한 私事여행자의 시에서

*여성자아 성장과 정체성 재정립

- 문화 충격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고의 몸')이라도 자기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 변화를 지향한다.
- 중국시장을 흥분하면서 충격적으로 수용한다.
-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고 그대로 자기 몸속에** 담아 극복해 냄이 있다.
- 이전과 이후의 변신이 있다 해도 그것은 결국 몸 즉,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변신이다.
-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와 소통하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권리인정 투쟁: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생활 전선

- **-개인재산의 인정투쟁 "필사적 쟁취":** 간부들도 집을 사고 팔고 한다. 한 개인이 아들을 위해 집을 국정가격은 평당 2원 40전인데 만원에 샀다. 불법거래라 하고 하여 도시경영에서 그 집을 뺏어먹자 했다. 먹자는 보위부에 찾아갔다. '집값은 국가 집이지만 돈은 내 돈이다. 법은 이렇다 해도 생활은 생활이지 않나. 집값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줄여서(절약해서) 내 돈으로 샀다. 집값을 게우라. (살 수 있는) 집은 가득하다. (그 집을 빼앗아 혁신자 주겠다고?) 혁신자가 어디 있나? 데려오라 내가 주겠다. ...너 오도바(오토바이) 타던데 그 어디서 났나? 개인 재산이야. 험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냥 줄 수 없다. 내 돈 팔고 내 집 샀는데... 총명서 입사증은 보위부 정보부장이 가졌다. 그 입사증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 2달에 걸쳐 싸워서 집을 찾았다. 이제 사람들이 집은 다 산다. 그저 가지는 사람은 없다. (2016년 무산 사례)
- **-무슨 장사를 해서 먹고 살까?:** 인기 있는 컴퓨터 장사는 중국 영화는 보지만 한국 드라마 금지 때문에 문제다. 텔레비, 녹화기 등에 대해 109상무(보안원, 보위부, 당적 구루빠)가 있어서, 잘못하면 2000원(위안) 벌금 한다. 그래서 컴퓨터는 걷어치워라 했다. 2016년 9월 북부지역 수해복구 건설에 돌격대들이 2017년 4월까지 있으니까 목욕탕이 잘 된다. 이런 것을 보고 세탁소를 하려고 좀더 알아보고 있다.
- **-늘 유동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시장 환경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번번이 달라지기 십상이다.**

*시장의 이중성 · 양극화: 개인에게 기회는?

- 기회의 공간은 많지만 쏠려있다?
- 군대, 기관 기업소 단위들의 동원으로 국제적 경제제재국면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부지역 수해 복구 건설에서처럼 사회경제적 자원을 집중화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역설적인 '경제의 활력' 요소로 되었다. ("자강력제일주의", "전화위복" 전략.)
- 동원된 기관 기업소 단위 회사의 반대급부 "**무역와크**"
- -농업생산을 위해 농촌지역에 기름을 공급하고, 자동차 타이어 독점 와크를 받았다!(라선방문자 전언)
- -무산지역 여름모자 **임가공 경우**: 2016년 9월 수해 이후, 북한 경제 재제로 무산철광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무산의 경제는 타격을 입고, 남자들도 뜨개질을 한다. 1개당 3위안(조선돈 4500원 정도) 온종일 매달려도 한 개 완성품을 만들지 못한다.
- - 이 모자는 중국으로 가져와서 최종으로 물빠짐 방지 등 처리를 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반제품이었음. 이 임가공에서 북한 주민은 <장사>가 되는 일을 찾아내고자 하지만, 임가공 단계를 쪼개어 **북한의 단순노동만 이용하고**, 북한이 중간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미미함.

*여성 삶의 전형성-힘이 없는 보통 여성 생존 모습?

- 먹는 것 해결도
- 그럭저럭
- 기력이 세하여도
- 자신을 위해 영양제 하나 살까
- 망설여야 할 이유가 있지
- 평생 몸 사리지 않고
- 챙겨야 할 자식들, //
- 어머니는
- 세상 사람들 다 바보라 해도
- 자식이 어려운 건
- 자식이 못사는 건, //
- 빈 젖마저 물려
- 허어연 눈물이라도
- 짜서 먹인다. -나는 그 눈물을 보았다(2017.9)

*송금

- 인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
- 이탈주민 할머니: 400만원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통장에 20여만 원 남았지만, 발을 짝 뺀고 편한 잠을 잔다.
- 중국에 뿌리 내린 사사여행자: 월 수입 1만원 이상 전문가도 성장, 가족들의 생업 종자돈 송금
- 강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에 나온 사사여행자는 비법취업을 하고 강돈벌이를 해서 화교송금, 이관(무역결재를 대신하는 방식) 등의 수단을 써서 국내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 기관 기업소의 동원에 수도 무역와크가 달려있는 바, 북중접경/변경경제 합작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북한이 무엇보다 크다. 조직사회와 정비와 내부강화도 이와 같은 양면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부, 북중과의 관계에서 유입되는 힘

5. 맺는 말

- 우리 과제는 북중변경경제협력과 교류에 주목하고 **남북 민간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이 **것은 남한은 지원하고 북한은 받아먹는 이익만 취하는 일**이 아니다.
- 북한은 경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로 가고, 남한은 **남북이 통하는 <한반도>를 터전으로 삼는 미래 전략**이 가능하다. 즉 명실상부하게 반도로서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한 미래 전략을 만드는 지름길을 하루 빨리 찾는 것이 우리 과제이다.
- 지정학적 역사와 <백두산>에 담긴 민족 무의식?
- -남/북 모두 백두산 천지에 오르면 한결같이 감동하고 기뻐한다? (무의식 속 **진짜 희망**은 무엇일까?)